

# 광주 민간공원 협상 뒤집기 '의혹 투성'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일부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일부 지구에서는 큰 점수차로 1위에 오른 지방공기업이 돌연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하는 전례없는 일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걸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변경했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최대 노른자위로 관심을 모은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취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주)에서 (취한양으로 변경했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 자격을 가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자격을 박탈당했다.

민간공원 우선협상권자가 한 달여 만에 뒤집힌 것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 재평가 결과 발표도 수차례 지연되면서 무성할 뒷말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감사 착수 배경이 불분명하다. 시는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라 착수한 것이 아니고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자체 점검 차원에서 착수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감사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시 안팎에서는 특정 업체의 비공식 이의제기가 있었고 시가 입찰 지침을 어긴 채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이 퍼져다. 또 탈락업체 계열사 고위 간부가 사전유출된 제안서 평가결과보고 문건을 정중제 행정부시장에게 들이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시가 재공모에 나서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자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일일이 점수를 매기는 흔치 않은 선택을 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감사위 감사 결과 발표장에 감사 대상 부서 책임자가 배석한 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비례량 평가를 하는 제안심사위에 자체 계량평가 결과를 들이밀어 "들러리 논란"이 제기된 것도 미심쩍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우선협상자 변경의 실질적 첫 단추가 다름아닌 심사표 사전 유출임에도 시나 감사위는 여태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행정상 중요 보안서류를 흘렸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출 공무원은 1명이다" "추가 유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

## '감사 출발선' 심사표 유출 의혹 증폭 "썩은 살 도려낸다" 수사의뢰 미적미적 큰 격차 1위 도시공사, 돌연 자격 반납

변만 되풀이할 뿐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평가표 유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시중에 두 가지 버전의 문서가 나도는 가운데 '평가표가 시의회로 나가는 가운데 '평가표가 시의회로 일부 유출됐다'라고만 밝힐 뿐, 유출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 고위 간부가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이용섭 시장이 "썩은 살은 도려내겠다"며 읍참마속과 일벌백계를 강조했고, 정 부시장도 "제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려한 말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 발언한 것과도

배치된다. 정탁과 함용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서둘러 봉합했다.

시가 관련 실무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도, 문책도 아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는 사이 오히려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적소송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버르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총체적 부실이라며 시장의 사과와 평가 책임자·관련자 처벌, 관련자 전원 사법당국 고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8.6점으로 총점 84.8점을 기록한 (취한양을 8.8점이 넘는 큰 점수차로 따돌렸다. 시민평가단과 제안심사위 심사결과 점수

차가 8점으로 벌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민참여단의 한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갑자기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한 것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공원일괄제 시행(2020년 6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포기했고, 이른바 '방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갑질 처리 미반영에 따른 특혜 의혹, 시장 측근 인사 개입설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조성원이 공개와 적정분양가 산정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석연찮다" "특정 업체 걸터 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그룹의 평가 점수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재평가 결과 발표일을 당초 13일에서 14일로, 다시 17일로 예고했다가 19일 오후에야 짙막한 보도 자료로 대체했다. 내우외환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로드맵에도 상당한 일정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운행 멈춘 택시** 카카오톡 서비스에 반발해 부산지역 택시가 20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나선 가운데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택시업체 주차장에 운행을 중단한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 "광주 보건소장 갑질 논란 계기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을"

광주·전남건강보험은 20일 광주 지역 보건소장 갑질 논란을 계기로 공공보건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객관적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광주시 한 보건소에서 갑질 논란이 제기된 이후 유사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소 노조원들의 설문조사가 감사·징계로 이어졌고 구성원간 갈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우 갑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소극적인 조직 관리를 하게된다면 지역보건 사업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며 "광주시 보건당국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건 전문 기관으로서 적절한 위상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는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공공보건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서 지역 보건의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와 각 자치구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공보건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 검찰, 딸·처제 강제추행한 5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8살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년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5년 자신의 처제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또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마트 천막 밑 기어들어 식자재 턴 3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새벽시간대 마트를 턴 혐의(절도)로 A(3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마트에 4차례 침입, 고기·민두·과일 등 각종 식자재(200만 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달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 현관문 앞쪽에 설치된 강화천막 밑 좁은 공간을 기어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 밖에 진열된 식자재만 훔친 뒤 포복 자세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배가 고프다"며 식자재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 여고생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3명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학교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A(21)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등학교 선배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학교 후배인 C(18·여)씨를 협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를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노인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 붙잡혀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31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B(78)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교회를 가는 중이었다.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백미러 조각 등을 단서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 아파트 옥상 차광막 건너 뛰던 10대 추락사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놀던 10대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7)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동구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1층에 추락했다.

A군은 아파트 옥상의 등과 등 사이에 설치된 비 가림 아크릴 차광막의 150cm 정도 되는 거리를 건너뛰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옥상에서 놀던 중 반대편 지붕에서 차광막으로 몇 차례 뛰다가 깨지면서 1층으로 추락했다"는 A군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